

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농지 전수조사"집중 홍보

✎ 김남현 기자 | Ⓞ 승인 2026.09.24 20:00

-부여지사-충남지역본부 직원 30여 명, 사업안내 리플릿 배부 및
맞춤형 상담 진행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 펼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및 충남지역본부 직원 30여 명이 지난 23일 부여중앙시장과 주요 도심을 상대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및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여지사 제공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지난 23일,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부여 중앙시장 등 주요 도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및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부여지사 및 충남지역본부 직원 30여 명은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펼쳤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이양함으로써 은퇴 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을 제공하여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부여지사는 이번 홍보를 통해 사업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여지사는 농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안내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많은 농민들은 투명한 농지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 홍보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최인모 지사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